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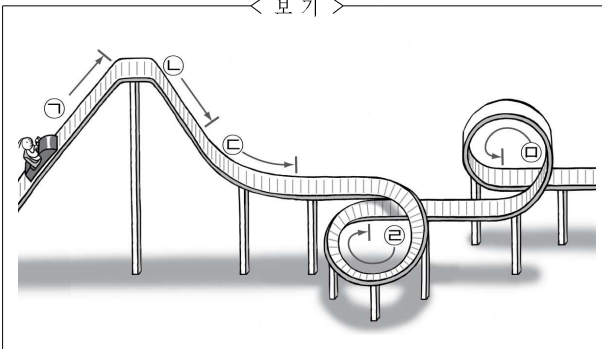
2

1

- 문제지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 ~ ㉥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몸이 좌석에서 분리되는 느낌은 없겠군요.
- ② ㉡ - 갑자기 속력이 증가하며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들겠어요.
- ③ ㉢ - 비로소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안도감이 들겠네요.
- ④ ㉣ - 몸이 바깥으로 쏠리는 느낌 때문에 공포감도 크겠네요.
- ⑤ ㉤ -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겠군요.

2. (물음) 강연자의 질문에 청취자가 떠올릴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는 지난 중간고사 때 반 평균보다 점수가 떨어져서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 ② 중학교 동창생인 경수와 영철이는 중학교 시절 서로 자기가 더 인기가 많았었다고 티격태격 다했요.
- ③ 철수는 자기가 반장이었을 때 학급 분위기가 좋았다고 자랑하는데 실은 그 해 저희 반은 최악이었어요.
- ④ 저는 아무리 아파도 꼭 등교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중학교 성적표에서 결석한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 ⑤ 초등학교 때도 고된 많기로 유명했던 경희는 요즘 고민이 하나도 없었던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3. (물음) 동생이 대화를 단념하게 된 ‘언니 말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③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
- ④ 인신공격을 하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다.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위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 ① 영화 제작의 최근 경향
- ② 만화의 영화화가 지닌 장점
- ③ 만화의 영화화에 대한 전망
- ④ 만화와 영화의 예술 장르로서의 위상
- ⑤ 만화의 영화화가 만화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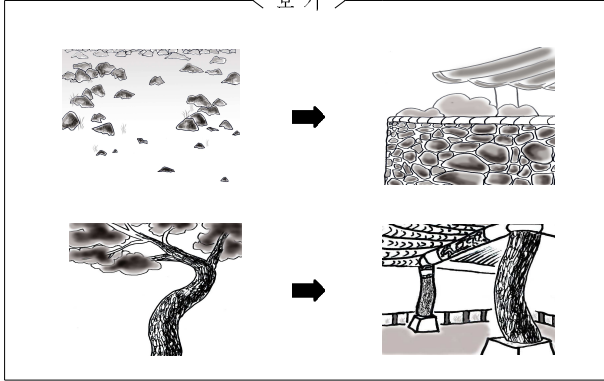
5. (물음)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 온 의견 중, ‘이 선생님(여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 ① 상상하면서 읽는 만화의 즐거움은 최고랍니다.
- ② 만화는 영화는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만화가 예술성을 지닐 수 있을까요?
- ④ 만화가 경쟁력을 잃으면 영화화도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 ⑤ 만화를 영화로 제작하면 만화 제작도 더 활성화될 겁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교육'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연상 과정을 거쳐 글을 생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연상한 내용	생성된 글감
①	조화 속에서 사물의 의미는 더욱 빛난다.	협동 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②	모든 사물은 교유의 생김새와 개성을 살려야 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③	쫄모 없어 보이는 사물에서도 의미가 발견된다.	숨겨진 능력을 찾아내어 장점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④	사물의 가치는 쓰임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교육을 해야 한다.
⑤	사물은 만남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7. 'TV 드라마가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계획을 구체화하였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1. 가설 설정	○ 청소년은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의 직업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조사 대상 및 설문 자료 수집	가. 조사 대상 ○ 도시와 농촌 소재의 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여 학생 1,0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정한다.㉠ 나. 자료 수집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을 정리한다. ○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직업적 특성이 잘 드러난 드라마를 조사한다.㉡
3. 설문 문항 내용	○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 ○ TV 드라마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적이 있는가?㉣ :
4. 설문 결과 정리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과 TV 드라마 속 직업과의 연관성을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정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불법 간판의 정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요>

<자료>

주제문 : _____
 I. 서론 : 불법 간판의 현황
 II. 본론
 1. 불법 간판의 범람 원인
 가. 상인들의 인식 부족
 나. 임의적 간판 제작
 다. 형식적 관리 감독
 2. 불법 간판 범람의 문제점
 가. 업소 간 지나친 경쟁
 나. 도시 미관을 해침
 다. _____
 3. 불법 간판의 개선 방향
 가. 상인들의 인식 전환
 나. 설치 장소의 자율화
 다. 법령 체계의 현실화
 III. 결론 : 요약 및 제언

ㄱ. 간판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살리는 중요한 조형물이다.
 ㄴ. 적법 간판과 불법 간판의 비율이 80 : 20으로 조사되었다.
 ㄷ. 불법 간판이 주로 상가 출입구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ㄹ. 광고 효과가 없을 정도로 간판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
 ㄹ. 간판 디자인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① ㄱ을 활용하여 주제문을 '불법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자.'로 정한다.
 ② 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 서론'에서 실태를 제시한다.
 ③ ㄷ을 'II-2-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든다.
 ④ ㄹ을 근거로 'II-2-다'에 '간판 형태의 문제'를 넣는다.
 ⑤ ㄹ을 근거로 'II-3-나'를 '제작자의 디자인 교육에 참여 유도'로 바꾼다.

9. '삶의 길'에 대해 쓴 글 중, <보기>에 제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 기 >

1. 인식의 전환을 드러낼 것
 2. 역설적 표현을 나타낼 것
 3. 직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남들과 다른 나의 삶이 과연 옳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② 오솔길에 개미가 지나가고 다람쥐도 달려갑니다. 숲의 향기를 맡는 평화로운 이 순간, 나는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아름다워서 슬픈 오후입니다.
 ③ 오늘도 해바라기처럼 빛나는 태양 아래 수많은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이기에 행복합니다.
 ④ 흙 속에는 농부처럼 일하는 작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지구를 비옥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허겁지겁 세상을 달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 '건전한 놀이 문화 만들기'에 대한 주장의 글을 <보기1>과 같이 작성하였다. 고쳐 쓰기를 하여 <보기2>와 같이 완성하였을 때, 토의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많은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에 빠지거나 인기 연예인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행복한 삶은 건전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생활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 갖지 못하고 외부에 종속시킨다면 학생으로서의 성취감이나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의 내용	ㄱ. 의문문을 사용하여 관심을 유발하자. ㄴ. 전체 내용의 통일성을 살리도록 하자. ㄷ. 인용을 통해 논지를 뒷받침하도록 하자. ㄹ.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도록 하자. ㅁ.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자.
-------	--



< 보 기 2 >

여러분은 인터넷 게임에 빠지거나 인기 연예인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이정가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유희하는 인간'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유희는 인류 문명의 씨앗이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놀이 문화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생활 속에서 이를 극복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학교 축제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성취감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1. <보기1>을 <보기2>와 같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로 정리하였을 때,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교사 : 국화가 참 멋있게 피었구나!

학생 : ㉠ 선생님, 그런데 국화에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나요?

교사 : ㉡ 예로부터 국화는 의를 지키는 선비 정신을 상징했어. 그리고 향기가 그윽해서 은일화(隱逸花)라고 불렸지. ㉢ 우리 국화 향기 한번 맡아 볼까. 어때, 향이 그윽하지? 국화 향기를 오래 맡으려면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해. ㉣ 내일 아침부터 네가 화분에 물을 주도록 해.

학생 : ㉤ 나도 국화처럼 향기가 그윽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 보 기 2 >

화자의 요구	요구의 유형
없음	 ㉠
있음	대답 ㉡
	행동 수행(청자 단독) ㉢
	행동 수행(청자, 화자) ㉣

- ① ㉠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된다.
 ② ㉡은 화자가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된다.
 ③ ㉢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므로 ㉣에 해당된다.
 ④ ㉣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된다.
 ⑤ ㉤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된다.

12. <보기1>에 해당하는 용례를 <보기2>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1 >

반의 관계에 의거하여 형성된 대등 합성어 중에는 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면 기존의 대등 관계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거나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 보 기 2 >

- ㄱ. 파도에 여객선이 좌우(左右)로 흔들렸다.
 죽든 살든 좌우간(左右間) 뉘쳐나갈 결심을 했다.
 ㄴ. 그들 부부와 정수 남매(男妹) 네 식구밖에 없었다.
 남매간(男妹間)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ㄷ. 약속 시간을 몰라 조만(早晚)을 단정할 수 없다.
 안개가 조만간(早晚間) 산 전체를 덮고 말 것이다.
 ㄹ. 고지에서 피아(彼我)를 알 수 없는 병력이 나타났다.
 피아간(彼我間)의 약속은 적의 기습으로 깨지고 말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나)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딱딱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겨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뽕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뚤한다 합니다. 천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지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後代)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은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파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서정주, 「침향(沈香)」—

(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간격」—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③ (나), (다)에는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 ④ (가) ~ (다)에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⑤ (가) ~ (다)에 모두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시에서 시인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합리성=인위성=경제성=현대적 삶’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비합리성=자연성=비경제성=본래적 삶’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메마른 인간성과 현대 사회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 ① ‘참나무’를 묻는 질마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본래적 삶을 회복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자연에 순응하며 ‘침향’을 만드는 질마재 사람들의 태도를 긍정하며 인위적인 것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침향’을 준비하는 질마재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선조들의 민족의식이 당면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참나무’가 ‘침향’이 되기까지의 오랜 과정에서,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합리적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 ⑤ 이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실리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5. (다)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나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도종환, 「여백」 중에서—

- ① <보기>의 화자 : 저는 나무의 모습이 인간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② (다)의 화자 : 저 역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 ③ <보기>의 화자 : 그렇군요, 저는 허공이 나무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④ (다)의 화자 : 당신이 말하는 여백을 위해서는 나무들처럼 사람 사이에도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어야겠군요.
- ⑤ <보기>의 화자 : 그렇습니다. 사람은 넉넉한 허공이 주는 외로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성숙한 삶에 이를 수 있는 법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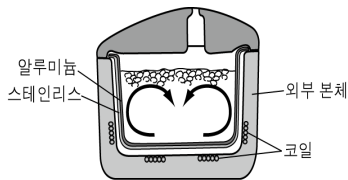
1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을 집약시키고, ㉡은 시상을 전환시킨다.
 ② ㉠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 주고, ㉡은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③ ㉠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은 대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④ ㉠은 정서 표현의 매개물이고, ㉡은 인식 변화의 매개물이다.
 ⑤ ㉠은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은 주제 의식을 집약시킨다.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H 압력솥은 1994년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IH란 ‘Induction Heating’의 약자로 ‘전자 유도 가열’이라는 뜻이다. 기존의 취사기는 히터로 내부 솥을 가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비하여 IH 압력솥은 내부에 있는 솥 주변에 코일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전류를 통과시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 때 저항 때문에 발생한 열로 쌀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즉, 히터의 열을 내부 솥에 전달하여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솥 자체에서 열을 발생시켜 밥을 짓는 것이다. 쌀은 열이 고르게 가해져야 맛있는 밥이 되는데, IH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내부 솥 전체라는 넓은 열원(熱源)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다.

IH 압력솥은 외부 본체와 내부 솥이 있고 이 둘 사이는 틈이 있다. 내부 솥은 2중 구조인데 안쪽은 알루미늄이고, 바깥쪽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 외부 본체의 안쪽에는 코일이 깔려 있는데 취사 시 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코일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주



< IH 압력솥의 구조 >

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내부 솥의 스테인리스를 관통하는 자기장의 방향 역시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하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한다.

내부 솥의 ㉠ 스테인리스에도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유도 전류가 발생되는데, 이 전류를 위에서 보면 소용돌이 모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맴돌이 전류라고 한다. 스테인리스에 흐르는 맴돌이 전류는 스테인리스의 전기 저항 때문에 열을 발생시킨다. 이 열은 열전도가 좋은 알루미늄을 통과해 전체로 퍼져 나가 내부 솥 자체가 가열되어 밥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화력 조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IH 압력솥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제어하는 것과 전류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화력을 조정한다. 이때 주파수가 낮으면 유도 전류가 늘어나 화력이 강해지고, 반대로 주파수가 높으면 화력이 약해진다. 솥 안의 온도 변화를 서미스터*가 감지하고 거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컴퓨터가 판단하여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나 주파수를 미묘하게 바꾼다. 또 IH 압력솥은 코일의 위치를 적절히 설계하여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동일한 밥을 지을 경우 IH 압력솥은 히터에 비하여 전기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뛰어난 취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미스터 : 코발트, 구리, 망간 등의 산화물을 적당한 저항률과 온도 계수를 가지도록 혼합하여 만든 반도체

17. ‘IH 압력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②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가 이용된다.
 ③ 밥을 지을 때 내부 솥 자체가 가열된다.
 ④ 코일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 밥을 짓는다.
 ⑤ 동일 조건에서 기존의 취사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18. 어느 IH 압력솥 제조 회사의 고객 상담 게시판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답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자	
△△ IH 압력솥 고객 상담 게시판	
질문	밥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밥솥은 _____

- ① 마이크로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그럴 수 있습니다.
 ② 솥 안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인 것 같습니다.
 ③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는 스테인리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④ 코일에 문제가 있어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⑤ 히터가 문제가 생겨 내부 솥이 가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9. ㉠의 기능과 관련 있는 단어는? [1점]

- ① 발열체(發熱體) ② 발광체(發光體)
 ③ 가연체(可燃體) ④ 탄성체(彈性體)
 ⑤ 절연체(絶緣體)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어머니 쪽에서 저희를 서방 각시가 ㉠ 오순도순 금슬 좋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더 무엇을 바라라 하면서도 점점 못되어 가는 딸의 얼굴을 대하고는, 왜 하필이면 이런 겨울 들어 얼음물에 손 집어넣어 물감을 건져내야만 먹고 사는 해변 지방으로 여의었던가 하는 후회를 씹지 않을 수가 없는 심사가 되어 “몸은 무거운데, 어떻게 해의(김) 일을 하고 사냐?” 하고 오열하면서 딸이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딸이 행실은 분명하여 자기의 늙은 어머니를 먼저 자기의 시부모가 있는 안방으로 모셔가는 것이었는데, 늙은 어머니는 자기의 목구멍에서 언제 터져 나와서 사돈네를 당황하게 만들지 모르는 기침이 격정되었다.

제발 사돈 내외 앞에서만은 기침이 나와 주지 않기를 원천하시는 하느님께 빌고, 딸이 “어쭈님, 친정어머니가 오셨구만이라우.” 하는 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차렸다.

원래 여자 걸음이란 한 번만 옮겨도 ㉡ 솔과 떡이 따라야 하는 어려운 걸음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길에서 맞부딪쳐도 딸 둔 사돈 쪽에서 딸아 놓고 길 밑으로 내려서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터인데도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이 어찌 낯 뜨겁지 않을까마는, 이 한겨울 났잖지 위에서 얼굴이 ㉢ 푸룽푸룽 얼부푼 아들을 생각하면, 한 뼘 반 뼘이 아깝고 서러운 처지인데 무슨 인사치레는 인사치레나 하며 눈 딱 감고 마주앉았다.

한때 발장에 붙은 마른 김을 떼던 바깥사돈어른은 김 떼던 걸 밀어 두고 긴 담뱃대 끝에 담배를 쭈서 다져 화로 속에 넣고 ㉣ 뽕뽕뽕뽕 뽕뽕뽕, 찬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식의 인사말이라도 하는 것이었지만, 좁장한 얼굴에 입술이 뾰족하고 언제 보아도 싸늘한 인상인 안사돈은 발장에서 김 떼는 일을 계속하며 “막동이 사돈이 장역을 산담스롱이라우?” 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거 추운디 참…….”

바깥사돈어른이 담배를 뽕뽕 말하자, 안사돈은 또 “대관절 뭘 일로 그랬다우?” 하고 ㉤ 꼬치꼬치 캐묻는 게 타고난 말투가 그러한지, 모르긴 해도 뾰족뾰족 가시가 돋친 듯 얼굴에 따갑게 느껴지기만 하여 “글썸이라우” 하고 한숨을 내뿜고, 바깥사돈어른이 밀쳐둔 김 붙은 발장을 당겨다 김을 한 장 막 떼려 하는데, 사돈어른의 덜 탄 담배 연기 때문인지 쿨룩하고 기침이 터져 나왔다.

늙은 어머니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 쉼을 끄는 등 마는 등 번소로 달려가서, 쪼그려 앉아 땀가죽을 그리워하고 기침을 하여대다가 간신히 목을 가다듬고 일어서는데, 긴장에서 마른 김 붙은 발장을 한 아름 안고 내려오다 그걸 본 딸이 발장을 마루에 쾅개치고 번소로 달려와 북어 껌질을 입혀 놓은 듯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슨 약이라도 잡수셔야지 그냥 이대로 다니다가 어찌려고 이러느냐 하면서 발을 굴렀다. 늙은 어머니는 작은아들 이현이 ㉦을 지어다 달여 주는 것을 이때까지 먹다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날 밤 머슴을 데리고 바다에 나가 김을 따 가지고 들어온 사위 또한, 남의 자식이더라도 내 자식의 지극한 사랑의 정에 따라 뜨겁게 지극해지게 마련인 법이라, 딸 못지않게 깜짝 놀란 듯 반가워하며, 자기가 어쩔조함의 총대 일을 보느라 바빠서 막동이 처남한테 면회 한 번 못 갔음을 죄송해 하더니, 막동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묻고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빨고 있다가 딸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서자, 모녀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쌓였을 게 아니냐면서 마루로 나갔다.

그 사위가 눈물겨울 만큼 고맙게 생각하여 준 대로, 모녀가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며 나란히 누워 밤을 새우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마는, 늙은 어머니는 그런 복자가리를 타고나지를 못했고, 그 없는 복자가리 때문에 애꿎은 딸까지 고생을 시켜야 하였다. 딸은 이 밤으로 어머니가 이고 온 미역을 김으로 바꾸어 와야 하는 것이었다.

⋮
(중략)
⋮

‘뭇 땀시 이란단가?’

혹시 그놈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디 다른 데로 보내 버렸을까 하며 조금해진 어머니의 생각에, 꼭 열두 번째의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막동이 면회 온 분!” 하는 소리가 들려, “휘이,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보다.” 하며 난로 위의 뜨거운 ㉧ 쇠고깃국 냄비를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석 들어 안고 면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할머니!” 하고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종이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시고 “이막동이가 아들이오?” 하고 물었다.

“예에.”

가슴이 후들거리고 기침이 목구멍 너머에서 자꾸 근질거리며 튀어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어 억누르는데, “이막동이 말고 아들 또 있소?” 하고 다시 물었다. 둘이나 있다고 하자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말을 주고받은 뒤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이막동이 어찌 옮겨 왔어요?” 하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교도관이 예뻐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 번 일그러뜨리고, 문밖으로 멀리 갔다는 손짓을 곁들여 통명스런 목소리로, “목포로 갔단 말이오, 어제. 빨리 그리로 가보시오.” 했다.

늙은 어머니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목포로 옮겨라우?”

교도관은 고개를 주억거리려 주고, 잠시 동안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

“어따 어메, 어째사 쏘꼬!” 하고 허둥지둥 나서다가, 쿨룩 쿨룩 터져 나오는 기침 때문에 창자를 그러ஞ느라고 쪼그려 앉은 늙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유병 하나가 떨어져 하얗게 박살이 나고 있었다. 옆에 섰던 한 남자가 안되었다는 듯 ㉨ 꿀꿀 혀를 차는 것이, 그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까닭이 없는 것이었다.

— 한승원, 「어머니」 —

2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삶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삶이 교차되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③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⑤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21. ㉠ ~ ㉥에 담긴 등장인물의 심리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머니는 시집 간 딸이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다정하게 살아가길 원했다.
 ② ㉡ : 어머니는 감옥살이하는 아들의 처지를 걱정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③ ㉢ : 바깥사돈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있지만 어머니를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④ ㉤ : 안사돈은 막둥이의 안부를 물으며 어머니를 살갑게 대하고 있다.
 ⑤ ㉥ : 면회장의 남자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고 있다.

22. <보기>는 어머니가 10년 뒤에 외손녀에게 옛일을 회고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 내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구나. ㉠ 하지만 막동이 삼촌에게 면회하려면 돈이 필요했던 이 할미는 미역을 김으로 바꾸려고, 너희 집을 찾아왔다.

네 에미를 만나 보니, 얼굴이 점점 못되어 가고 있더구나. ㉡ 얼음물에 손 집어넣으며 사는 바닷가로 왜 시집을 보냈던고 하는 생각에 나는 목메어 울었다.

얌전하고 행실이 분명한 네 에미는 내가 왔다고 네 조부모께 먼저 고하더구나. ㉢ 빈손으로 온 것이 염치없었지만 돈을 아껴 막동이 삼촌에게 음식을 넣어 주어야 하겠기에 나는 모른 척해 버렸다. 담배 연기에 기침이 터져 나와 밖으로 나가니 네 에미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더구나. 밤에 들어온 네 에미는 또 얼마나 따뜻하던지. 우리 모녀를 위하여 일부러 마을로 자러 나가더구나. ㉤ 네 에미 턱에 우리는 밤을 새워 이야기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저저 마련한 돈으로 할미는 교도소로 가 막동이 삼촌 면회를 신청했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막동이 삼촌은 나오지 않더구나. ㉥ 한참 뒤 막동이 삼촌이 목포로 옮겨졌다는 교도관의 말에, 나는 놀라서 허둥지둥하다가 우유병을 깨뜨리고 말았구나. <하략>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보기>의 ㉠와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허물어진 흙담 너머로 / ㉠ 주먹발을 건네주시는
 손길은 뜨겁지만, / 그 손길은 격정스레 말을 뿜었지만,
 어머니의 입 어둑처럼 닫혀져서 / 말쑥을 못하시네.

-이성부, 「어머니」 중에서-

- ① 기침 ② 술과 떡
 ③ 짙신 ④ 약
 ⑤ 쇠고깃국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왕과 보만후 사이에서 난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경덕후와 승경후의 간계로 버려진 후, 소에게 삼켜져 금송아지로 다시 태어난다. 왕은 금송아지가 자신의 자식인 줄 모른 채 신기하게 여겨 아끼고 사랑한다.

금송아지 또 문을 받으니 보만후 생각하되,
 ‘요사이 들으니 왕께서 금송아지와 더불어 매일 소일하신다 하더니, 어찌 이곳에 와서 작란을 하는고?’

문을 열고 보니, 송아지 방으로 들어와 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비창한 빛이 있으며, 입을 쭉긋쭉긋하며 무엇이라 하는 듯하거늘, 보만후 등을 어루만지며 이르기를,

“내가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바가 있는 듯하다. 요새 들으니 폐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어 매일 너와 소일하신다 하거늘, 무슨 소회(所懷)가 있어 이 심야에 와 이와 같이 하느냐? 나는 사람이나 도리어 너만 못하다. 너는 정전(正殿)에서 왕을 모시고 ㉠ 한가히 놀며 좋은 음식을 먹되, 나는 이 초옥에 홀로 있어 평생에 못해 보던 밀 한 섬씩 갈아 손이 부르트고 사지가 아니 아픈 데가 없고 의복은 남루하고 머리 빗어 본 지 몇 해며 세수한 지는 몇 달인지 알 수 없고, 이 중에 배는 고파 피골이 상접하여 반 귀신이 되었으니, 뉘라서 이 불쌍한 신세를 알리오. 오래지 않아 죽으리다.”

눈물이 비 오듯 하니, 금송아지 고개를 숙이고 위로하는 듯이 앉았더라. 보만후 일어나 메를 잡으며 환탄하기를,

㉡ “이 밀을 오늘 밤에 다 갈지 못하면 악한 형벌을 당하리니, 장차 어찌 다 갈꼬?”

밀을 갈고자 하는데, 금송아지 일어나서 앞발로 메를 잡고 갈거늘, 보만후 희한히 여겨 금송아지를 어루만지며,

“네 고생은 사람이 다 모르되, 천지신명이 아시고 너를 보내시어 나의 수고를 대신함이냐?”

연하여 밀을 갈아 주니, 순식간에 한 섬을 다 갈아 놓았는지라. 보만후 아주 기뻐하여 하늘께 축수(祝手)하고 금송아지를 대하여 은근히 사례함을 마지아니하니, 금송아지 머리를 쪼아 하직하는 뜻을 보이고 도로 나가거늘, 보만후 등을 어루만져 보내고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금송아지가 무엇을 알기에 이와 같이 와서 내 수고를 대신하여 주는고? 오늘은 금송아지 덕으로 잠이나 좀 자리로다.’

자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 비몽사몽간에 한 부처 와서 이르되,

“금송아지는 그대의 아들이다. 그대의 액운이 차차 다하여 오매, 송아지가 대신 수고하여 고생을 덜게 함이니 그리 알라.”

∴

(중략)

∴

채란이 어의에게 말하기를,

“아신다 하시니 다시 말할 필요는 없사오니, 대개 보만후 고생은 서로 시기심에서 생긴 일이온데, 근일 금송아지가 매일 밤이면 보만후에게 가되 여차여차하오니 실로 희한한 일이라. 뒤에 무슨 후한이 있을까 하여 이와 같이 함이니, 어의는 다음날 입궐하여 금송아지의 간이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금송아지는 죽이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니 부디 명심하소서.”

이에 채란 궁으로 돌아가니라.

어의가 채란을 보내고 생각하되,

‘보만후와 같이 현덕(賢德)이 있는 이가 오늘 저 고생함은 정덕후와 승경후의 투기 때문이라. 어진 이는 백신이 호위한다더니, 미물의 송아지도 보만후의 고생을 불쌍히 알고 그 수고를 대신하니, 이는 신명이 가르쳐 보만후를 보호함이라. 내가 만일 금송아지를 해치면 보만후를 해침이나 다를 리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무수히 생각하다가 밤이 이슬한 후 자리에 잠깐 누웠더니,

㉠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금신(金神)이 내려와 이르되,

“송아지를 해하면 천벌이 있을 것이니, 금송아지는 서쪽 땅으로 놓아 보내고 다른 간을 대신하여 약을 쓰고 조심하여 발설하지 말라. 장래에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깜짝 놀라 깨니 꿈이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 일이 심상치 아니하여 장래 무슨 일이 있으리니 내 이리이리하여 금송아지를 살려 보내고, 개를 잡아 간을 내어 쓰리라.’

이와 같이 마음을 정하고 이튿날 입궐하니 왕이 묻기를,

“정덕후의 병은 무슨 약이라야 가히 치료할꼬?”

어의 아뢰기를,

“이 병은 금송아지의 간이면 치료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왕 이르기를,

㉡ “금송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약을 쓰도록 하라.”

어의 아뢰기를,

“금송아지의 간이라야 쾌복(快復)하시리이다.”

㉢ 조정 모든 대신이 한결 같이 아뢰기를,

“폐하, 한 금송아지를 아끼시어 왕후 병환을 구하지 아니하심은 불가하오니, 깊이 생각하시어 나라의 웃음을 취하지 마소서.”

무수히 간하니, 왕이 마지못하여 이에 하교하시기를,

“금송아지를 잡아 간을 내어 쓰되, 만약 효염이 없으면 어의는 법으로써 죽이고, 또 금송아지를 멀리 데려가 죽이라. 아끼던 것의 죽음을 눈앞에서 맞게 되니 가탄(可歎)이로다.”

라며 비창함을 보이시더라.

어의 금송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나와 일러 말하기를,

“네가 비록 김승이나 심상치 아니한지라. ㉣ 말은 못하여도 사람의 말을 들을지라. 이 길로 곧 서쪽 땅으로 달아나 몸을 피하라. 나는 개를 잡아 간을 드리리라.”

금송아지 무수히 사례하고 즉시 서쪽 땅으로 가니라.

—작자 미상, 「금송아지전」—

* 메 :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나무나 쇠로 만든 방망이

25. 위 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후에 전개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위 소설은 불교적 인연설을 바탕으로 ‘원형-변신-원형’의 변신 모티프가 나타난다. 또한 권선징악(勸善懲惡)과 행복한 결말이라는 요소도 지니고 있다.

- ① 금송아지는 조력자를 만나 도술을 배운다. 전쟁이 일어나자, 큰 공을 세워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 이후 승상의 자리에 올라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
- ② 금송아지는 꿈에서 부처의 계시를 받아 불쌍한 사람들을 구휼하기 시작한다. 이에 사람들이 감사하며 따르자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아 마침내 득도하여 극락왕생하게 된다.
- ③ 금송아지는 부처의 도움으로 사람이 되어, 전생의 인연인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된다. 이후 궁궐에서 쫓겨나 떠돌던 모친을 만나지만, 형편이 빈곤하여 모친 고생 끝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슬퍼한다.
- ④ 금송아지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왕자임을 알린다. 부모와 재회하여 기쁨을 나누고, 정덕후와 승경후, 채란의 잘못을 밝히어 그들을 벌한다. 이후 행복하게 살다가 훗날 극락으로 떠난다.
- ⑤ 금송아지는 전생의 스승을 다시 만나 도술을 배우게 된다. 모친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지만, 모친은 이미 돌아가신 후이다. 정덕후와 승경후, 채란을 찾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모략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위로를 하고, ㉡은 질책을 하고 있다.
- ② ㉠은 감동을 조장하고, ㉡은 오해를 풀어준다.
- ③ ㉠은 사실을 알려 주고, ㉡은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은 반성의 계기가 되고, ㉡은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 ⑤ ㉠은 현재의 일을 말하고 있고, ㉡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다.

24.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은 보만후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② 채란은 금송아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
- ③ 어의는 보만후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 ④ 모든 대신은 왕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 ⑤ 보만후는 금송아지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27. ㉢~㉤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호의호식(好衣好食)
- ② ㉣ :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 : 애지중지(愛之重之)
- ④ ㉢ : 이구동성(異口同聲)
- ⑤ ㉤ : 유구무언(有口無言)

[28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과 동물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자의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세포는 죽음을 선택할까? 소위 '진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개별 세포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마땅한데 스스로 죽기로 결정한다니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세포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이 죽는 것이 전체 개체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의적'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세포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

세포의 '자의적' 죽음이 있다는 말은 '타의적' 죽음도 있다는 말일 것이다. 타의적인 죽음은 네크로시스(necrosis), 자의적인 죽음은 아포토시스(apoptosis)라고 불린다. 이 두 죽음은 그 과정과 형태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타의적인 죽음인 네크로시스는 세포가 손상돼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 안팎의 삼투압 차이가 수만 배까지 나면 세포 밖의 물이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유입돼 세포가 터져 죽는다. 마치 풍선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 '퐁!' 하고 터지듯이 말이다. 이때 세포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염증 반응을 ㉠ 일으킨다. 이러한 네크로시스는 정상적인 발생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한 유전자의 발현이나 새로운 단백질의 생산도 필요 없다.

반면 자의적인 죽음인 아포토시스는 유전자가 작동해 단백질을 만들어 내면 세포가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고 생체 에너지인 ATP를 적극적으로 소모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네크로시스와는 정반대로 세포는 쪼그라들고, 세포 내의 DNA는 규칙적으로 절단된다. 그 다음 쪼그라들어 단편화된 세포 조각들을 주변의 식세포가 시체 처리하듯 잡아먹는 것으로 과정이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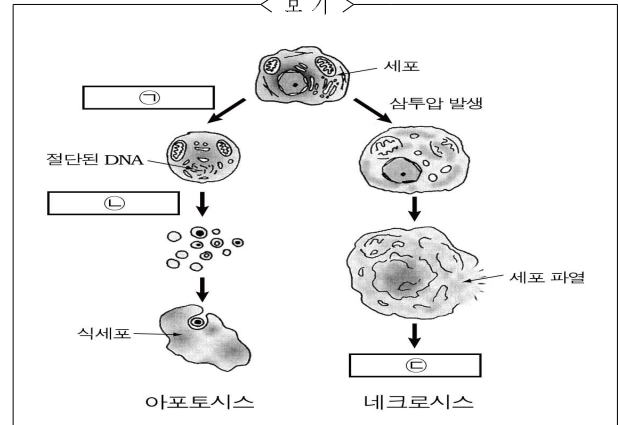
인체 내에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A] 하나는 발생과 분화의 과정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난다. 사람은 태아의 손이 발생할 때 몸통에서 주먹 모양으로 손이 먼저 나온 후에 손가락 위치가 아닌 나머지 부분의 세포들이 사멸해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손 모양을 만든다. 이들은 이미 죽음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이런 과정을 PCD(programmed cell death)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세포가 심각하게 훼손돼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체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세포는 죽음을 선택한다. 즉 방사선, 화학 약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면 세포는 이를 감지하고 자신이 암세포로 변해 전체 개체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한다. 이때 아포토시스 과정에 문제가 있는 세포는 죽지 못하고 암세포로 변한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아포토시스와 암의 관계를 알게 되자 암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해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 등을 죽이는 역할의 T-면역 세포(Tk cell)도 아포토시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세균이 몸 안에 침입하면 T-면역 세포는 세균에 달라붙어서 세균의 세포 벽에 구멍을 뚫고 아포토시스를 유발하는 물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세균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28. 위 글을 읽고 '아포토시스'와 '네크로시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① 유전자 작동	염증 발생	ATP 소모
② ATP 소모	물의 유입	염증 발생
③ 물의 유입	유전자 작동	ATP 소모
④ 유전자 작동	세포의 단편화	염증 발생
⑤ ATP 소모	세포의 단편화	물의 유입

29. [A]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 ①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면서 꼬리가 점차 사라진다.
- ②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꾼다.
- ③ 도마뱀은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
- ④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해서 알을 낳고 죽는다.
- ⑤ 레밍 쥐는 집단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30.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에 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네크로시스와 관련이 있겠군.
- ② 우리 몸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아포토시스와 관련이 있겠군.
- ③ 아포토시스를 이용한 항암제는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 ④ 화학 약품은 네크로시스를 일으켜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 ⑤ T-면역 세포가 아포토시스를 통해 세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겠군.

31.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세찬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다.
- ② 그는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 ③ 그녀는 기울어진 가세를 홀로 일으켰다.
- ④ 그녀의 고백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다.
- ⑤ 불규칙한 식사가 결국 위장병을 일으켰다.

[32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이 다른 문자보다 말소리를 제대로 반영했음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른바 1자 1음, 1음 1자의 성질이다. 훈민정음은 말소리(음운)와 문자의 대응 관계가 거의 일치한다. 문자가 소리를 적고, 그 문자를 다시 소리로 내야 한다면, 한 글자가 한 음운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문자는 음운을 적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시 읽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한 소리가 여러 문자로 표기되거나 한 문자가 여러 소리를 낸다. 이를테면 a는 열 가지 정도, e, o는 열세 가지 정도, u는 아홉 가지 정도로 발음된다. 거꾸로 [o]라는 발음은 'all, caught, poll'에서와 같이 다양한 문자로 표기된다. 그래서 발음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 알파벳의 발음과 기호의 불일치는 술하게 지적되어 왔다. 세계음성기호(IPA)는 그런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나왔는데, 한글은 그 자체가 이런 음성기호 구실을 할 수 있는 소리 바탕 문자이다. 한글은 몇몇 예외는 있으나 한 음운이 한 문자로 표현되고(/a/-ㅏ), 한 문자는 한 음운(ㅏ-/a/)으로 나타난다. 이 원리가 지켜진다면 배우기 쉽고 표기법을 세우는 데 많은 이점이 있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말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문자 시스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소리를 정확히 관찰해 분석해 냈기 때문이다. 문자를 만들기 위한 세밀한 과정이 '과정 충위'이다. 과정 충위에서 독특한 점은 균형 잡힌 이분법과 삼분법의 철저한 결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분법은 자음과 모음을 각각 문자화한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음운 문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이 균형을 이룬다. 영어는 26자의 자모 중에 모음이 5자(a, e, i, o, u)이고 자음이 21자이다. 이에 비해 훈민정음은 자음이 17자이고 모음이 11자로 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

자음 :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ㅂ ㅍ ㅈ ㅊ ㅍ ㅎ ㅇ ㄹ ㅁ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실제 쓰임새에서 영어는 자음과 모음의 배열이 들쭉날쭉하다. 'school'은 '자자자모모자'이고, 'apple'은 '모자자자모'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글자(음절)마다 모음이 배치되어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한다. 이런 자음과 모음의 대응 관계는 자판을 통해 그 효율성이 금방 드러난다. 한글 자판은 왼쪽은 자음, 오른쪽은 모음으로 확연히 갈라져 배우기 쉽고 치기 쉽다. 이에 비해 영어 자판은 모음 글쇠 위치에 일정한 원칙이 없고, 실제 칠 때에도 'read'와 같이 오로지 왼손으로만 치는 경우도 있다.

훈민정음은 음운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되, 문자는 초성자와 중성자를 함께 만든 이원적 삼분법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의 두벌식 표준화 자판은 훈민정음의 이런 중층(이분법과 삼분법) 속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세종이 ㉠초성, 중성, 종성의 삼분법을 문자 창제의 주요 원리로 삼은 것은 탁월한 식견이었고, 훈민정음의 폭넓은 음역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나라 말처럼 '초-중-종' 삼분법으로 발달되어 있는 언어는 드물다. 이러한 삼분법은 보편적인 자음, 모음의 이분법과는 또 다른 소리 문화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32.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각각 문자화한 것이다.
- ② 모음자의 개수에 따라 문자의 우열을 나눌 수 있다.
- ③ 영어 한 단어를 받아 쓸 경우, 철자가 다를 경우가 있다.
- ④ 훈민정음은 소리를 적고, 표기한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 ⑤ 훈민정음은 말소리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뒤에 만들어졌다.

3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1>을 사용하여 'communication'과 '커뮤니케이션'을 양손으로 칠 때, <보기2>에서 적절한 내용을 고른 것은?

[3점]

< 보기 1 >

Q	W	E	R	T	Y	U	I	O	P	{	}
A	S	D	F	G	H	J	K	L	:	;	"
Z	X	C	V	B	N	M	<	>	?	/	

<두벌식 표준화 자판>

< 보기 2 >

ㄱ. 'communication'을 칠 때는 양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치기가 편리하겠군.

ㄴ. '커뮤니케이션'은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나타나므로 대체로 왼손과 오른손을 균형 있게 사용하겠군.

ㄷ. 'communication'은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비슷하지만 자판을 칠 때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겠군.

ㄹ. '커뮤니케이션'과 'communication'은 타수가 같으므로 오른쪽 자판과 왼쪽 자판을 치는 횟수가 같겠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4. ㉠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로마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과 비슷하다. 그러나 로마 알파벳은 나열식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음절을 식별하기 어려운데 반해 한글은 음절을 식별하기 쉽다. 가령, 'America'는 몇 음절인지 겹으로만 보아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아메리카'는 네 음절임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도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음절 단위로 표기하기 때문에 음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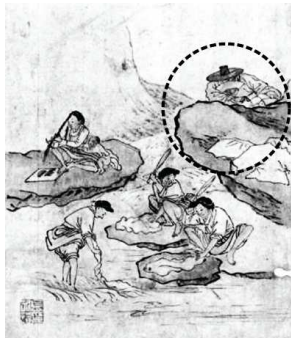
- ① 로마 알파벳은 한글과 달리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기 쉽지 않다.
- ② 로마 알파벳은 한글처럼 음운 문자이지만 음절을 이룰 수가 없다.
- ③ 삼분법은 여러 문자 중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표기법이다.
- ④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것은 나열식으로 배열하기 위해서이다.
- ⑤ 삼분법은 음운 문자와 음절 단위의 표기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 입장에서 작품에 예술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소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점이 마구 섞여 있다. 그렇다면 판소리 사설에서 시점이 뒤섞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주지하다시피 판소리 광대는 일인 다역(一人多役)의 연출자다. 혼자 모든 ㉡ 인물들의 역할뿐 아니라 서술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고, 나아가 소도구를 운용하거나 ㉢ 효과음을 내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판소리 광대는 예술 내적 세계를 모두 조망하면서 ㉣ 공연 중에 현재 공연에 대해 논평을 하는 등 자신의 예술 세계를 연출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또한 판소리 광대는 내적 독백이나 ㉤ 등장인물의 대사를 표현할 때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포착하여 흥내 낸다. 그런 반면에 서술자의 발화 부분에서는 인물의 모방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 전지적 입장에서 진술하게 된다. 이런 전지적 입장의 진술 대목은 한 인물의 목소리에서 빠져나와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옮겨가는 중간에 짧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인물의 목소리 흔적들이 묻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판소리 광대의 미숙한 연행술로 보거나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인물 모방 충동이 강한 광대에 의해 수행되는 판소리 연행 관습의 산물일 뿐이다.

판소리 사설의 시점 혼합 현상 이면에는 이러한 연행적 배경 외에 사회·문화적 배경도 작용한다. 조선 후기 사회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힘입어 구성 주체들이 자신 있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기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대이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판소리 등장인물의 목소리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판소리의 시점 혼합 현상에는 당대의 사회적 상황 또는 당대인들의 의식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원래 시점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문학 작품보다는 회화를 통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따라서 판소리 사설의 시점 혼합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조선 후기 회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면을 바라보는 구경꾼을 배치한 그림들은 대개가 복합 시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풍속화나 산수화 속의 장면은 주로 화가가 액자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반영하지만 액자 내부의 관찰자가 느낀 체험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 화가는 액자 내부 시점을 통해 대상을 재해석하는데 이러한 재해석이 그의 세계관이고 현실 인식이며 예술적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판소리에 비하자면 액자 외부의 시점은 서술자의 목소리, 액자 내부의 시점은 극중 인물의 목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시점은 문학 작품보다 회화에서 이해하기 쉽다.
- ② 판소리 사설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③ 판소리 광대는 인물 모방 충동이 강한 예술인이다.
- ④ 판소리의 시점 혼합 현상은 작품의 예술적 통일성에 기여한다.
- ⑤ 조선 후기 회화에서도 판소리와 유사한 시점 혼합 현상이 나타난다.

36. ㉠ ~ ㉥ 중,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3점]

< 보 기 >

[진양]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으 가난이야. 잘살고 못살기는 묘 쓰기의 때였는가? 북두칠성님이 집자리으 떨어칠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하는거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호가사로 잘 사는데 이년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별었어도 삼순구식을 헐 수가 없고, 가장은 부황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이것이 모두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자식들도 모두 따라서 우는구나.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온다, 박홍보가 들어와.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 이게 웬일인가? 마누라가 이리 설리 울면 집안으 무슨 재수가 있으며, 동네 사람으 남이 부끄럽다. 우지 말고 이리 오소.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배가 정 고프거든 지붕에 올라가서 박을 한 통 내려다가, 박 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어다 양식 팔고 나무를 사서 어린 자식을 구완을 허세. 우지 말라면 우지 마라.

[아니리]

홍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툭툭 뿜겨 본즉 팔구월 찬 이슬에 박이 짹짹 여물었구나. 박을 따다 놓고 홍보 내외 자식들 데리고 톱을 걸고 박을 타는데.

(중략)

[휘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식삭 시르렁 시르렁 실근 실근 식삭 실근 실근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삭 식삭

- 「홍보가」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위 글에서 구경꾼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대의 민중 의식을 비판한다.
- ② 화가의 의식 세계를 반영한다.
- ③ 감상자의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한다.
- ④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시점을 통일시킨다.
- ⑤ 액자 내부 시점과 외부 시점을 단절시킨다.

38. <보기>를 참고했을 때, ㉠에 쓰인 어미와 의미가 다른 것은?

< 보 기 >

‘주지하다시피’는 ‘주지하-(어간)’와 ‘-다시피(연결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다시피’는 ‘-는 바와 같이’와 ‘어떤 동작에 가까움’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① 너도 알다시피 내게 무슨 힘이 있니?
- ② 보시다시피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③ 너도 느끼다시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 ④ 시간이 없어서 나는 거의 뛰다시피 급히 걸어갔다.
- ⑤ 너도 짐작하다시피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서(G. Chaucer)는 일곱 가지 대죄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것이 시기심이라고 했다. 그것은 어떤 한 가지 덕목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덕목과 모든 좋은 것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악마와 같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느끼는 기쁨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 목적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이 시기심의 특징이다.

시기심은 자신과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거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열등감을 야기한 대상에 대해 품게 되는 감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상대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그가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거나 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모든 좋은 것에 대해 ㉠ 적대감을 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심 없는 마음조차 시기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상에게도 적대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때로는 상대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강렬하게 표출되는데, 이러한 시기심을 ‘적대적 시기심’이라고 한다. ‘적대적 시기심’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는 이른바, ‘간접 시기심’에서도 나타난다. 뛰어난 재능과 부와 권력을 갖고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성공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경계하고 시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점점 더 훌륭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결국 ‘모두 없어져 버려라!’ 같은 소름 끼치는 파괴의 형태로 나타나 그 절정을 이룬다. 모든 훌륭함과 탁월함에 오직 적대적이며 그것을 파괴하는 것만이 목적인 것이다. 우리가 피해야 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기심의 발현이다.

맨디빌(Bernard de Mandeville)은 『꿀벌의 우화』에서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뒤의 문장이다. 다른 어떤 악덕의 경우와 달리, 사람들은 시기심을 품었던 적이 있다는 것조차 시인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존심이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시기심을 인정하면 자신이 못났다는 것, 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든 시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시기의 마음을 품었다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시기심을 ‘실질적인 시기심’이라고 했고, 그 밖의 시기심을 단지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우호적 시기심의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시기심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파괴적인 힘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바로스(K. Barrows)의 말 또한 귀담아들을 만하다. “우리가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모든 훌륭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적대적 시기심은 타인의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망가뜨린다. 시기심의 나쁜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의 은유적 가르침**은 소중하다. 꽃들은 시샘도 잘한다. ‘어서 나도 아름답게 피어야지’ 하고 서두르다가 때를 앞질러 피어나 손해를 좀 보는 일은 있어도, 남을 괜히 흘려보거나 음모를 꾸미는 일은 없다. 그저 자신의 개화에 열중할 뿐이다. 꽃들이 시샘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을 키우는 일 뿐이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뿐이다. 꽃들은 자기 성숙으로 경쟁한다.

3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도 시기심을 품는다.
- ② 시기심은 긍정적인 목적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
- ③ 인간은 훌륭한 면을 지닌 상대에게도 시기심을 품는다.
- ④ 타인의 파멸을 가져오는 시기심은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 ⑤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다.

4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건축과 조각 그리고 발명에서 그리스 신화 최고의 장인이었던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조카 탈로스를 제자로 키웠다. 이 소년은 명민함과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삼촌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다이달로스는 이런 탈로스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탈로스가 뱀의 턱뼈에서 영감을 얻어 튼을 발명하자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서 조카를 떨어뜨렸다.

- ① 탈로스에게 다이달로스가 한 행동은 ‘적대적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다이달로스는 어린 조카인 탈로스에게 ‘간접 시기심’을 품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다이달로스의 시기심은 비우호적인 시기심을 넘어 ‘실질적 시기심’으로 발현되었다.
- ④ 탈로스가 튼의 발명을 다이달로스의 공으로 돌렸다면 다이달로스의 시기심은 사라졌을 것이다.
- ⑤ 다이달로스가 탈로스에 대한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했다면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1. 자연의 은유적 가르침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넓고 큰 집을 산 영미를 친구들이 절투하자, 친구들에게 영미의 겸소함을 본받으라며 충고하였다.
- ② 동생이 눈송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을 보고, 나도 꾸준히 달리기를 연습하여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 ③ 입원 중인 친구에게 매일 찾아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쳐 주었더니 친구와 자신의 성적이 모두 올랐다.
- ④ 다른 사람과 자주 대립하여 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친구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 ⑤ 길에서 폐휴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고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라 할머니가 끄는 무거운 손수레를 밀어 드렸다.

42. ㉠과 관련 있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나중에 난 뽀이 우뚝하다.
- ② 남의 속에 든 글도 배운다.
- ③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뻘다.
- ④ 부자일수록 근심이 더 많다.
- 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웰빙(well-being) 열풍은 약간 다른 뿌리에서 나왔다.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며 다른 개발도상국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한국식 웰빙은 공동체적 즐거움보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물론 이 같은 웰빙 열풍이 소비 경향으로 정착된 데에는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여 ① 판매 전략에 활용한 기업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웰빙의 또 다른 배경은 고령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개념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인 예방의 개념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것이 웰빙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웰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은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한국식 웰빙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서 도피하려는 탈출구로 나타난 것이라면, 선진국에서는 물질적 풍요에서 비롯된 과도한 배금주의 현상과 개인주의 성향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강했다. 따라서 웰빙을 추구하는 방식도 우리와는 달리 정신건강과 행복, 여유 및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선진국형 웰빙이 바로 미국식 웰빙인 '로하스(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LOHAS)'다. 로하스는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이나 사회 정의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만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한국식 웰빙과 로하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식 웰빙이 개인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소비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로하스는 다분히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한국식 웰빙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지만, 로하스는 자신의 이웃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구입하는 것이다. 당연히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제품에 관심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는 개념이 나와 내 가족만의 건강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식 웰빙은 환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환경 보존을 위해 고가의 친환경 제품까지를 구매하지 않지만, 로하스는 환경을 위해서는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더 비싼 가격까지도 감수하며 사회·경제·환경적 토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한국식 웰빙의 성격과 특성이 결국 미국식 로하스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웰빙의 뿌리가 다른 탓에 로하스로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연 한국식 웰빙은 어떻게 진화할까?

43.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유추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조의 방법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설을 설정한 후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⑤ 기존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위 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 유형'을 검사해 보았을 때,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닌 소비자일까?

질 문	예	아니오
•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다.	✓	
• 친환경 제품이지만 값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는다.	✓	
•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한다.		✓
•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제품만 구매한다.		✓

검사 결과 :
당신은 (A) 소비자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B)입니다.

A		B	
①	한국식 웰빙형	—	환경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는 유형
②	한국식 웰빙형	—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적극적인 실천 의지는 부족한 유형
③	한국식 웰빙형	—	환경은 소비자가 앞장서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
④	미국식 웰빙형	—	환경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는 유형
⑤	미국식 웰빙형	—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적극적인 실천 의지는 부족한 유형

45. ㉠이 반영된 광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페달을 밟는 순간 자연과 하나가 된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 ② 더불어 살던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느껴 보세요. 어려운 시절 친구들과 한 입씩 나눠먹던 ◇◇빵.
- ③ 땅이 아프고 물이 아프면 당신의 피부도 아픕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화장품으로 아름다움을 가꾸세요.
- ④ 청정 백두대간에서 베어 낸 아름드리 소나무로만 지었습니다.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켜 줄 ○○전원주택에서 살아 보세요.
- ⑤ 당신이 구입한 △△TV, 아프리카의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TV는 구매 금액의 1%를 국제 난민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46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정(無情)히 컸는 바위 유정(有情)하여 보이나다.
최령(最靈)한 오인(吾人)도 직립불의(直立不倚) 어렵거늘
만고(萬古)에 끈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나다.

계구대(戒懼臺) 올라오니 문득 절로 전궁(戰兢)*하다.
대상(臺上)에 살펴보며 이같이 저허커든
못 보고 못 듣는 땅이야 아니 삼가 어찌하리.

격진령(隔塵嶺) 하 높으니 홍진(紅塵)이 멀어 간다.
가뜩이 먹은 귀 씻을수록 먹어가니
산 밖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듣도 보도 못하다.

㉠ 세상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본분 버리고 사람 좇아 내 어디로 옮겨가리오.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생긴 대로 늙으리라.

-박인로, 「입암29곡(立岩二十九曲)」 중에서-

*전궁(戰兢):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나)

벼슬길도 나그네 길이라 밤마다 꿈을 꾸노라면
고향의 푸른 산을 언제나 맘돌았었지.
허술한 집이나마 비바람 막을 수 있어
처자식 이끌고 돌아왔어라.
내 재주 원래가 모자라서 한 것이니
벼슬 일찍 버린 것도 아쉽지 않아라.
내 본성 원래가 웅졸하게만 살아왔기에
㉡ 세상 건너기가 어려운 걸 알겠어라.
마을에 잔치 벌이니 고향 사람들 백안시하지 않고,
고깃배에 술 취하여 얼굴들 모두 붉어라.
선인들 남기신 글 다시금 읽어 가며
남은 생애 이 가운데 내어 맡기리라.

羈夢棲縈繞碧山 敞廬風雨挈家還
才疎敢惜休官早 性拙深知涉世艱
鄉里開筵無白眼 釣船沽酒每朱顏
殘書點檢先人跡 已辨餘生付此間

-정약용, 「봉화계부운(奉和季父韻)」-

(다)

세상에 앞 못 보는 장님은 어찌하여 사는가!
내 눈이 안 보일 때 비로소 앞 못보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 세상
에는 얼마든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난다.

검안을 한 결과는 경도(輕度)의 난시(亂視)였고 그 후 며칠을 지
나 눈에 맞는다는 안경을 맞추어 썼다. 그러나 맞는다는 안경은 쓰
는 순간부터 부자연하기 짝이 없다.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이 바로
뵈기는커녕 어둡거리기만 한다.

의사에게 이 안경이 내 눈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 했더니 처음은 누
구나 다 그러하니 한 십여 일 그대로 쓰고 견디어 보라 한다.(아무리
안 맞는 안경이라도 오래 써서 맞아질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닌가.)

그 후 십여 일도 훨씬 지난 오늘에 와서는 과연 의사의 말대로 어

둡거려 보이는 증세는 없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썼던 안경
을 벗는 날이면 온갖 것이 어둡거려 견딜 수 없다.

자아. 이렇고 보니 나는 안경으로 하여 이(利)를 본 셈인가, 해
(害)를 입은 셈인가? 생때갈던 눈이 안경을 따라 나빠진 것인지,
안경이 비뚤어진 내 눈알을 바로 잡아 놓은 것인지, 의사는 물론 안
경의 정확성을 고집하겠지만 나는 확실히 안경이 내 눈을 잡아 놓
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느 편이 나빠졌든 세상은 그저 속아서 사는 곳인가 보
다. 길이 들면 그대로 살란 법인가 보다. 만첩청산(萬疊靑山)을 울
을 삼고 번개같이 뚝뚝던 맹수라도 동물원 철책 속에 들어가는 날
이던 그놈도 하릴없이 길이 든다.

[A] 뒤통수에 눈알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행복되
었으리요마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없어도 사람이란 그대로
살아가는 법이요, 색맹이 붉고 푸른 빛을 구별할 줄 모르면서도
조그만한 부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이란 결국 자기
안에 한 세계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족(自足)하는 본성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보면 장님이라고 구태여 못 살란 법도 없을 것이다.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따로 이 자기의 ㉣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의사가 동공을 키워 논
대로 그놈의 약 기운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처음은 감감
할 것이나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차츰 길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
속에서 도리어 만족을 얻을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김용준, 「안경」-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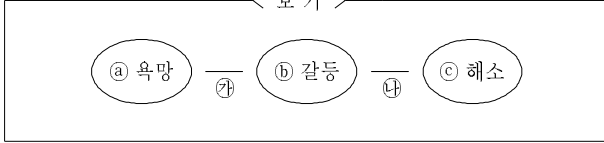
- ①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현실에 자족하려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부정적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미래를 낙관하며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4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탈속적 공간을 제시하여 삶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8. <나>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양상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 : '벼슬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의식이 드러난다.
 ② ㉡ : '고향의 푸른 산을 언제나 땀뒹았었지'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엿보인다.
 ③ ㉢ : '선인들 남기신 ~ 내어 맡기리라'에서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 :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도 화자는 '고향 사람들 백안시'를 염려하여 내면적 갈등에 빠지고 있다.
 ⑤ ㉤ : 화자는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왔어라'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9. [A]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바람직한 삶'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투명한 유리에 금이나 은을 칠하면 거울이 된다. 유리를 통해서 바깥세상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보인다. 내가 웃고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웃고 손을 내밀어 준다. 하지만 거울에는 자기만 보인다. 금, 은으로 사방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 속 사람들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돌보며 감옥인 줄도 모르는 채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

-장영희, 「거울 속의 감옥」 중에서-

- ① [A]의 화자 : 사람은 누구나 많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부분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② <보기>의 화자 : 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금과 은에 현혹되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③ [A]의 화자 : 더 큰 문제는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데 있습니다.
 ④ <보기>의 화자 : 저는 유리를 통해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⑤ [A]의 화자 : 그래요, 부족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며 만족을 찾는 것도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 ㉠~㉤ 중,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